

## 목양 칼럼

### 두 물줄기가 만날 때

강물은 흘러 바다로 갑니다. 그러면 마침내 강물과 바닷물이라는 두 물줄기가 만나게 됩니다. 이 때 강물 속에 있는 퇴적물이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과 진흙 등과 만나 서로 엉켜서 강 하구에 비옥한 땅을 만들어 냅니다. 이것을 우리는 삼각주라고 부릅니다. 삼각주는 비옥해서 많은 생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.

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사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에게는 독자가 있었습니다.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청년이었는데 그 독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. 배고파도, 아파도 살아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죽고 나니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남편이 죽었을 때도 슬픔은 컸지만 독자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은 아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. 그 과부가 울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와 함께 장례행렬을 따라 갑니다.

그 때 이 나인성을 향해 또 다른 행렬이 들어옵니다.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이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예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“울지 말라”고 위로하십니다.

아마 우리도 이 정도 위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 하십니다. “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.”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. 그 광경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라면 다시 살아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. 예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 주셨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

이 세상에겐 고통과 죽음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. 인간 스스로는 이런 물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어 모두 고통하며 신음합니다.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물줄기가 있습니다. 그 물줄기는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물줄기입니다. 이 두 물줄기가 만나면 고통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. 죽음은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.

성탄절이 다가 옵니다. 우리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.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?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슬픔으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. 죽음의 역사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. 인류의 애痛的 눈물이 하나님의 자비의 샘과 만나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비옥한 삼각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.

이번 성탄절에 함께 이 생명의 물가로 나가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생명을 함께 마시면 좋겠습니다. 고통과 죽음의 물줄기가 기쁨과 생명의 물줄기로 변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.

## 정기모임 안내

집회	시간	장소	
주일예배	1부 예배	오전 8:00	본당
	2부 예배	오전 9:30	본당
	3부 예배	오전 11:00	본당
	영어 예배	오후 1:00	본당
수요예배	오후 8:30	본당	
새벽기도회	오전 5:30 (월요일-토요일)	본당	
목장모임	오후 8:30 (매월 넷째 금요일)	각 목장별로	
제자훈련	각 동반자별로	각 동반자별로	
새벽이슬회(청년)	오후 8:00 (금요일)	새벽이슬회실	
주일학교	영아부 (3세 미만)	오전 11:00	영아부 예배실
	유치부 (3-5세)	오전 11:00	유치부 예배실
	유년부 (1-6학년)	오전 11:00	유년부 예배실
	중고등부	주일예배 오전 11:00 금요모임 오후 07:30 (금요일)	중고등부 예배실
Silver Club	미정(T.B.A)	친교실	
Mommy & Me	금요일 오전 10:00-11:30	유치부 예배실	
뉴욕에일한국학교	토요일 오전 10:00-12:00	교육관	

#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

## VISION 2022 EVANGELISM MARCH

### 뉴욕에일장로교회

표어: 예수님 제일  
(마 16:16)



- 영감있는 예배
- 십자가 사랑의 교제
- 땅끝까지 복음전파
- 천국일꾼 훈련양성
- 이민가정의 치료
- 능력있는 기도 생활

### 담임목사 김중훈

Senior Pastor: Rev.  
Jong Hoon Kim, D.Min

17 New South Rd.,  
Hicksville, NY 11801

Tel. (516)938-0383  
Fax. (516)938-3824  
<https://YaleChurch.org>

### 주일예배 (대강절 IV)

제 31권 51호 주후 2022년 12월 18일

예배 시간	1부 오전 8:00	2부 오전 9:30	3부 오전 11:00
인도자	김민목사	백에스라목사	김중훈목사
신앙고백	다같이		
찬송	109, 151장		
기도	김중수집사	윤희주장로	김두성장로
성경봉독	계(Rev.) 5:1-14		
찬양	예일관악단	글로리아	할렐루야
말씀	죽임 당하신 어린양 김중훈목사		
찬송	630장		
봉헌	다같이		
환영과 소식	인도자		
찬송*	635장		
합심기도*	다같이		
축도*	김중훈목사		

\*표는 일어서 주십시오

### 수요예배 (F.M.A. 성경공부) 12월 21일 오후 8:30

- 기도: 정정숙권사
- 말씀: 김중훈목사
- 다음주 기도: 최양미권사

### 새벽기도회 오전 5:30

- 말씀: 김중훈목사

### 다음 주일 기도

- 1부: 정재남집사
- 2부: 정수영장로
- 3부: 김동환장로

### 12월 안내위원

- 1부: 예배부
- 2부: 김태근A집사, 이소원집사
- 3부: 광정희권사, 임미라권사

예배 및 헌금 안내

- **대강절 네번째 주일:**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. 마지막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.
- **수요예배:** F.M.A. 성경공부 '룻기'
- **교회 내 마스크 착용 및 성도간의 악수는 자율에 맡깁니다.**  
교회와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 
-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-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 
Address: 17 New South Rd. Hicksville, NY11801).  
Pay to order: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.  
Venmo: venmo@YaleKM, CCM Venmo는 @YaleCCM입니다.
- **정책당회:** 오늘 3부 예배 후 친교실
- **유아세례**  
\* 서약식: 오늘 3부예배 후 목양실  
\* 세례식: 12/25 (주일) 3부 예배
- **중고등부 니카라과 선교 후원 행사**  
\* 오늘 각 예배 후 친교실  
\* 만두 수령 및 관련 문의: 중고등부 PTA (박경숙집사)
- **찬양위원회 식사:** 3부예배 후 친교실
- **마을지기 목자 총무의 밤:** 12/19 (월) 저녁 8시 친교실.
- **성탄 만찬 및 선교회 친목모임**  
\* 12/25(주일)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별 (다음 주 별도 간지 안내)  
\* 12월 선교회 월례회: 만찬 및 친목모임과 병행
- **선교회 헌신예배 신청:** 아직 선교회 헌신예배 일정을 제출하지 못하신 선교회는 12/25까지 부목 사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*2023년 임원명단:** 2023년 안수집사회, 권사회, 각 선교회 임원으로 섬기실 성도님들이 세워졌습니다. 간지를 참조하시고,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*창립 30주년 성경필사:** 1월 31일까지 제출, 관련 문의는 교육위원장(김동환장로)에게
- **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연습:** 각 찬양대별로 찬양대실
- **2023 교회생활 지침서 주소 변경신청 :** 부목사실로
- **니카라과 선교:** 2023년 2월 23일 - 27일  
\* 경비: 1인당 \$1,200, 문의: 지재홍장로  
\* 선교물품지원: 본당 뒷편 계시판 기재
- **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**  
- 강단 꽃: 전미경권사 (남편생일)  
- 사랑의 식탁: 전미경권사 (남편생일)  
- 2023년 강단 꽃 및 사랑의 식탁 신청: 본당 뒷편 계시판에
- **동시통역:**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(11am Service).  
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



정결케 하리라(말 3:1-6)

1. 유다 백성은 말로 여호와와 괴롭게 했다(2:17).
  - 1)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조롱조로 말했다.
  - 2)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난조로 말했다.  
\* 하나님을 원망하며 조롱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.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 기뻐하신다(히 11:6).
2. 만군의 여호와와의 대답(3:1-5)
  - 1)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.
  - 2)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라.
  - 3)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잣물과 같을 것이다.
  - 4) 그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, 은같이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.
  - 5)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  
점 치는 자, 간음하는 자, 거짓 맹세하는 자,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,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.  
\* 메시야는 오셔서 먼저 성전에서 그의 백성을 정화하기 원하신다. 그 이유는 공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기 위함이다.  
\* 잘못 된 예배의 모습: 눈먼 것, 저는 것, 병든 것을 주께 드림(1:8).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(1:10).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번거로워하고 코웃음 친다(1:13).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(2:3).  
\* 이런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불로 연단하실 것이다.  
\*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(막 11장; 요 2장)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(사 56:7)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. 고난은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다.
3. 하나님의 약속(3:6)
  - 1)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.
  - 2)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.  
\* 의인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(시 37:24).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(시 37:25).

[적용]

1. 하나님을 원망하며 조롱하다가 얼굴에 똥칠 당한 적이 있는가?
2. 이번 성탄에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?

행사예고

- 12/26-30 Youth Group Retreat
- 12/31 송구영신예배 (11:00 PM)
- 01/01 신년예배
- 01/02-07 신년특별새벽기도회

방송설교

- KRB FM 87.7 (라디오): 매주 화요일 오전 6:30-7:00
- Cablevision Ch. 1156 (텔레비전): 주일 오후 9:00-9:30 (재방송, 월요일 오전 6:30-7:00) CTS
- Direct TV Ch. 2092 (텔레비전): 주일 오후 8:30-9:00 (재방송, 월요일 오전 9:30-10:00) CTS
- CSN (www.csntv.net): 주일 오후 8:40 본방송 (재방송, 화요일 오전 9시)
- K-Radio AM 1660 (라디오): 매주 수요일 오후 12:54 (목회자 칼럼)